

일제강점기의 『마쿠라노소시(枕草子)』 수용 :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國文讀本)』의 서술을 중심으로*

김효숙 _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일어일문학 전공 조교수, 일본 문학 및 문화 전공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문학과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國文讀本)』
- III. 『중등교육국문독본』과 『마쿠라노소시(枕草子)』
- IV. 나오며

국문초록

조선총독부가 1930년부터 중등 교육용으로 발행한 교과서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國文讀本)』에는 그 전의 교과서와는 달리 일본문학작품이 대거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 문학작품은 원전에서 직접 인용하기보다는 일본에서 발행된 교과서를 편집하여 수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교육국문독본』 권8에는 현재도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고전 수필 작품 『마쿠라노소시(枕草子)』의 본문과 비평을 소개한 「청문사평(淸文私評)」이라는 글이 게재되어 있다. 이 글은 당시 일본고전문학 연구의 권위자였던 가네코 모토오미(金子元臣)의 주석서 『마쿠라노소시 평석(枕草子評釈)』이 원전이지만, 원전에서 직접 인용한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8065567)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간행된 교과서 『중등국어독본(中等國語讀本)』을 참조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교과서가 사용 어휘에서 문장의 취사선택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중등교육국문독본』에는 원전인 『마쿠라노소시 평석』과 『중등국어독본』에는 있지만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헤이안 시대에 성립된 와가(和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신이 계신 곳을 참배했다가 만난 두 남녀가 애정관계로 발전했음을 암시하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헤이안 시대 문학작품 속의 「신(神)」과 일본제국에 의해 국가신도가 강제된 식민지 조선에서의 「신(神)」은 그 함유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문화적 우월성을 피력하기 위해 일본고전문학작품을 교재화하면서도 그 고전문학작품의 세계관이 일본제국이 식민지 조선에서 필요로 하는 세계관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삭제, 편집을 통해 고전문학작품을 식민 지배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주제어

교과서, 일제강점기, 마쿠라노소시(枕草子),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國文讀本), 중등국어독본(中等國語讀本)

1. 머리말

교과서에 기술된 정보는 사회와 교육 정책을 농후하게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문학작품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장면 선택, 해설, 편집 등을 통해 저마다 다른 색깔이 입혀지고 포장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문학작품의 서술이 해당 교과서의 논리를 대변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미디어의 범람 속에 생활하는 현대인에 비해서, 미디어의 개체수가 압도적으로 적고 위정자의 지배 논리 그리고 그에 입각한 교육 논리가 절대적으로 작용했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한국병합 이후 일본은 교과서가 조선통치의 근본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¹⁾이라며 교과서 통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교과서를 그들의 식민정책 실현의 도구로 삼았다. 그렇기에 일제강점기의 시공간과 그 시공간을 통해 형성된 한국 근대 문단의 성격, 문학작품에 대한 지식 기반 등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실증적인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식민지 교육이 이후의 문학과 문단을 구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²⁾. 특히 근현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일본문학이 교과서를 통해서 어떻게 유통되고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의 일본문학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역량에 견주어 볼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최근 개화기 교과서의 영인본이 다수 출판되었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자료 열람이 가능해지는 등 근대기 교과서의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일부 연구 성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그 성과가 대부분 초등교육 과정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당시 조선총독부 교육정책이 초등교육의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초등교육 교과서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에 비해 중등교육용 교과서는 사용빈도가 낮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내용 자체가 주로 일본문학 작품 및 일본문화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 교육」의 틀 안에서 연구되지 않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교과서에 채록된 문학작품이 매우 한정적이고, 하나의 문학작품 안에서조차 극히 일부 장면만이 인용되기 때문에 심도 깊은 연구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 허재영,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과 교과서 편찬 실태」, 『동양학』 46, 2009, p.40.

2) 하재연, 「식민지 문학연구의 역사주의적 전환과 전망」,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p.32.

그러나 정규교육과정에서 교과서를 통해 흡수되는 정보는 학습자의 의식/무의식 속에서 「지식」으로 흡수되고 「사실」로 인식된다. 그렇기에 일제강점기에 일본문학작품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승계/단절되었는지, 또는 한국 근대 문단과 지식인층의 지식 기반에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의 실증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자는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중등교육용 「국어」(일본어) 교과서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國文讀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그중에서도 일본 헤이안(平安) 시대의 수필문학으로 지금 현재도 문학성을 높이 평가 받으며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마쿠라노소시(枕草子)』를 중심으로 그 출전 및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문학과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國文讀本)』

한국병합 후 일본은 교과서가 조선통치의 근본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통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는 조선의 교육 방침과 관련하여 동경제국교육회 조선교육부 주사(主査)위원회가 「教科書の編纂은 特히 重大한 者인즉 總督이 直轄할 機關을 設하여 此에 從事케 할 事」³⁾라고 언급한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며, 이러한 인식 하에 조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과서는 조선총독부의 편찬, 검정, 인가를 통해 발행되었다.

장신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총독부가 직접 발행한 교과서는 대략 초등 교과서 24종 700여 책, 중등교과서 135종 398책 등 합계 1,100여 책에 이른다⁴⁾. 이들 교과서의 내용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발표된 총 4차례(1911, 1922,

3) 『매일신보』, 「朝鮮教育方針」, 1910.10.13., 매일신보사, p.2.

4) 장신,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와 교과서 편찬」, 『역사문제연구소』 16, 역사문제연구소, 2006, p.61

1938, 1941)의 조선교육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교육령이란 현재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의 설립과 운영, 교과편성, 교과교육의 목표 등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규정인데, 교과서의 편찬과 공급도 조선교육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졌다.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이 바뀌면 그에 따라 조선교육령이 바뀌고, 이 변화는 교과서의 개정을 통해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물론 조선교육령 개정 중에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⁵⁾, 조선교육령 발표 시기와 교과서 제작시기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를 고려하여 교과서 발행을 조선교육령보다 더 세분하는 견해⁶⁾도 있으나, 어찌 되었건 교과서에는 각 시기별 식민통치 정책이 농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중등교육국문독본』은 1930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약 10년 동안 사용한 교과서인데, 이 시기에는 제2차 조선교육령(1922)에 의거하여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식민통치 정책이 무단정치에서 이른바 문화정치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교육령도 개정되었다. 그렇기에 2차 조선교육령을 기반으로 편찬된 교과서도 「문화정치」 정책을 입각하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른 시기의 교과서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논자의 조사에 따르면 문학작품이 집중적으로 게재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해당 교과서보다 먼저 제작된 「국어」 교과서 『고등국어독본(高等國語讀本)』(1914-), 『여자고등국어독본(女子高等國語讀本)』(1920-), 『개수고등국어독본(改修高等國語讀本)』(1921-), 『신편고등국어독본(新編高等國語

5) 김한중,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교과서 발행」, 『역사교육연구』 9, 2009, p.298.

6) 渡部学·阿部洋,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 朝鮮篇』 18, 龍溪書舍, 1990, p.1.

讀本』(1922-), 그리고 해당 교과서보다 늦게 편찬된 『중등국어(中等國語)』(1941-)에는 일본문학사 관련 서술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 『중등교육국문독본』에는 권별로 메이지(明治) 시대부터 나라(奈良)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문학사가 수록되어 있고, 또한 각 시대별 문학사에 해당하는 개별 작품도 다수 채록되어 있다⁷⁾.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중등교육국문독본』에는 문학작품을 식민지배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예시한 다른 교과서의 명칭이 모두 「국어독본」인데 반하여, 해당 교과서만이 유일하게 「국문독본」인 점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각 권에는 각 시대별 작품이 채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권8에는 「헤이안초 시대의 문학(平安朝時代の文學)」이라는 타이틀로 중고(中古)문학사가 게재되는 한편, 개별 고전문학 작품이 아래와 같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⁸⁾

『중등교육국문독본』 권8에 채록된 일본고전문학작품

권8의 단원 제목	인용 작품
4. 요시노의 가을안개(吉野の秋霧)	『진노쇼토키(神皇正統記)』
13. 아쓰모리의 최후(敦盛最期の事)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
17. 눈의 날(雪の日)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
22. 여행길(旅路)	『도사 일기(土佐日記)』
25. 청문사평(清文私評)	『마쿠라노소시(枕草子)』
27. 관공의 좌천(菅公の左遷)	『오카가미(大鏡)』

이와 같이 『중등교육국문독본』 권8에는 일본고전문학작품의 대표작이 다

7) 남자 중학교 교재인 『중등교육국문독본』과 함께 여자학교 교과서로 발행된 『중등교육 여자국문독본(中等教育女子國文讀本)』에도 문학사 및 문학작품의 인용이 눈에 띈다.
 8) 김효숙, 「미디어로서의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國文讀本)』 -편집과 발췌 그리고 오펜에 의한 교과서 서술」, 『일본공간』 26, 2019, p.92.

수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5. 청문사평(淸文私評)」은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 수필작품 『마쿠라노소시(枕草子)』의 본문을 인용하고, 거기에 당시 일본 고전문학 연구의 권위자였던 가네코 모토오미(金子元臣)가 해설을 덧붙인 글이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교과서 『중등교육국문독본』에는 『마쿠라노소시』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다음 절에서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Ⅲ. 『중등교육국문독본』과 『마쿠라노소시(枕草子)』

1. 「청문사평(淸文私評)」의 개요 및 출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마쿠라노소시』는 10세기 말부터 집필하기 시작하여 11세기 초반에는 거의 다 완성했다고 알려진 일본 고전 수필이다⁹⁾. 그 문학적 달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당시 궁중의 여관(女官)으로서 중궁 데이시(定子)를 모셨던 세이쇼나곤(淸少納言)이 집필한 가나(假名) 산문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작자 무라사키시키키부(紫式部)와의 라이벌 관계(로 해석되는 문장) 등이 주목받으며, 『겐지모노가타리』와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마쿠라노소시』는 특히 현행 일본 국어 교과서에 많이 채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학작품으로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주제의 내용이 옴니버스 방식으로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문장만으로 감상할 수 있고, 따라서 교재화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마쿠

9) 『마쿠라노소시』가 한반도에서 언제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근래에 정순분의 한국어 번역본 『마쿠라노소시』(2004, 갑인공방)의 출판을 계기로 대중적인 지명도가 급격히 향상되었음을 밝혀 둔다.

10) 東望歩, 「教科書のなかの〈枕草子〉」, 『日本文学』 63(1), 日本文学協会, 2014, p.18.

라노소시』는 근대기 교과서에도 다수 채택되었으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중등 교과서 『중등교육국문독본』에도 그 일부가 수록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권8에는 「청문사평(淸文私評)」이라는 글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쿠라노소시』이다. 특기할 사항은 타이틀이 『마쿠라노소시』가 아니라 「청문사평」이라는 점이다. 「청문사평」은 세이쇼나곤(淸少納言)의 문(文) 즉 『마쿠라노소시』의 본문과, 한 개인(私)의 평(評)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이란, 『중등교육국문독본』에 「청문사평」의 저자가 가네코 모토오미(金子元臣)¹¹⁾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평(私評)」은 가네코의 비평임을 알 수 있다. 그 구성을 보면 『마쿠라노소시』의 많은 단락 중에서도 「봄은 새벽녘(春は曙)», 「지나간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過ぎにし方恋しきもの)», 「고귀한 것(あてなるもの)», 「향로봉의 눈(香爐峯の雪)」 이렇게 4개의 단락이 수록되어 있고, 여기에 각각 가네코의 비평이 첨부되어 있다.

「청문사평」의 출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등교육국문독본』 교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방침을 제시한 『중등교육국문독본 권 7, 8 교수비고』(이하 『교수비고』)에는 『마쿠라노소시 평석(枕草子評釈)』(이하 『평석』)이라고 나와 있다. 『평석』은 1921년에 가네코 모토오미가 『마쿠라노소시』에 어휘 해설 및 비평을 추가하여 간행한 주석서로 메이지 서원(明治書院)에서 상권과 하권이 각각 1921년, 1924년에 간행되었으며 1925년에는 합본이 발행되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판과 쇄를 거듭하며 2016년에는 시미즈 서원(清水書院)에서 확대복각판(拡大復刻版)으로 출판되는 등 오랜 동안 『마쿠라노소시』의 주요 주석서로 활용되어 왔다. 이 『평석』에 대해 『교수비고』는 109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임을 소개하며 「요지(要旨)」에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11) 가네코 모토오미(金子元臣, 1869~1944)는 근대기를 대표하는 일본문학연구자이자 가인(歌人)으로 『고킨와카슈 평석(古今和歌集評釈)』, 『마쿠라노소시 평석(枕草子評釈)』 등의 주석서와 『가네코 모토오미 가집(金子元臣歌集)』을 남겼다.

국문학 중에서도 명저인 마쿠라노소시 가운데 「봄은 새벽녘」의 3편을 들어, 작자(논자 주: 가네코 모토오미)가 적절한 비평을 가한 것이다. 국문학적 상식으로서 세이쇼나곤에 대해 알게 함과 동시에, 간결하고 또한 정취 깊은 명평석(名評釈)의 일부도 알리고자 한다.¹²⁾

위의 인용문에서 「청문사평」은 『마쿠라노소시』 혹은 작자 세이쇼나곤이 이미 「국문학적 상식」이므로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또한 당시 헤이안 시대 문학작품 연구의 제일인자였던 가네코 모토오미의 「명평석」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은 논자의 조사에 의하면 『중등교육국문독본』의 「청문사평」은 「교수비고」가 언급한 것처럼 가네코 모토오미의 『평석』에서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본에서 발행된 교과서에서 전재(轉載)했거나 이를 기반으로 교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2. 일본 교과서 『중등국어독본(中等國語讀本)』의 『마쿠라노소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마쿠라노소시』는 이본(異本)이 많고 또 본문 이동(異同)이 매우 현저하기 때문에 출판본에 따라 단(段)의 수에 큰 차이가 있는데, 가네코 모토오미의 『평석』에는 301개의 단락이 수록되어 있다. 『국문독본』의 「청문사평」에는 『평석』에 게재된 301개의 단락 중에서 「봄은 새벽녘」,

12) 조선총독부, 『중등교육국문독본 권 7, 8 교수비고(中等教育國文讀本 卷七, 八 教授備考)』,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37, pp.118~119, 「国文学中の名著枕草子の中の「春は曙」外三篇をあげて、作者が適切なる批評を加へたものである。国文学的常識として清女につき知らしめると共に、簡潔にして而も情趣豊かな名評釈の一斑をも窺はしめたい」. * 본 논문에 제시된 한국어 번역은 모두 논자에 의한 것이며,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밑줄, 강조점 등의 부호는 모두 논자에 의한 것이다. 이하 같음.

「지나간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 「고귀한 것」, 「향로봉의 눈」 이렇게 4개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301개의 많은 단 중에 위의 4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채택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조선총독부가 교과서를 발행할 때는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혹은 일본 교과서를 저본으로 하되 식민지 상황을 고려해 조선총독부의 편수관이 직접 편집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는데¹³⁾, 『중등교육국문독본』의 「편찬취의(編纂趣意)」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지의 중학교 교과서는 조선의 각종 중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교재 중에 적당하지 않은 것 혹은 교수자가 취급하는데 곤란을 느끼는 것이 적지 않다. 본서는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 내선의 융화, 공영적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문장 혹은 현저하게 살벌한 기사 등을 삭제하여 오롯이 화평중정(和平中正)의 정조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재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¹⁴⁾

위의 인용문에서 조선총독부가 『중등교육국문독본』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교과서를 그대로 옮기면 「적당하지 않은 것」 「교수자가 취급하는데 곤란을 느끼는 것」이 있으므로, 「삭제」 등의 처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발행된 교과서를 참고로 하면서 편집과 수정을 통해 『중등교육국문독본』을 완성한 것이다. 한편 『교수비고』는 원칙적으로 『중등교육국문독본』 제작에 있어서 참고한 교과서가 있을 경우 각 단원마다 이를 명시하는데, 본고 가 주목하는 「청문사평」은 『평석』에서 인용했다고만 밝히며, 그 외 일본 교과

13) 장신(2006), p.61.

14) 조선총독부(1937), p.1. 「内地の中学校に於ける該科の教科書は、之を朝鮮の各種中学校に於て使用せんとする場合、其の教材中に或は適当でないもの、或は教授者の取扱に困難を感ずるものが少くない。本書は特に此の点に意を致し内鮮の融和、共榮的關係を阻害するが如き文章若しくは著しく殺伐なる記事等は之を省いて、専ら和平中正の情操の涵養に資するに足ると思はるる教材を収録するに努めた」

서의 참조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나 논자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발행된 교과서 『중등국어독본(中等國語讀本)』에도 「청문사평」이라는 타이틀의 글이 게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중등교육국문독본』과 거의 일치한다. 당시에 일본에서 발행된 중등교육용 「국어」 교과서는 문부성 편찬이 아니라 대부분 검정 교과서이기 때문에¹⁵⁾ 그 자료가 실로 방대한데, 그중에서도 『중등국어독본』은 일본문학자이자 가인(歌人)인 오치아이 나옴비(落合直文, 1861~1903)가 편찬한 일본 중등교육용 교과서로서, 오랜 기간 동안 개정을 거듭하며 베스트셀러가 된 저명한 텍스트이다.¹⁶⁾ 특히 1926년에 개정된 『중등국어독본 신수판(中等國語讀本 新修版)』(이하 『국어독본』)은, 오치아이가 이미 절명한 뒤였기 때문에, 가네코 모토오미가 보수자(補修者)로서 직접 개정 및 편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권10에는 자신이 집필한 『마쿠라노소시 평석』으로부터 발췌한 글을 「청문사평」이라는 타이틀로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타이틀이 「청문사평」인 점, 채록된 4개의 단락이 모두 같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국어독본』은 『평석』에서 직접 인용하기 보다는 일본 교과서 『중등국어독본』에서 전재했거나 혹은 참조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교수비고』에는 『중등교육국문독본』의 「모노노아와레(物のあはれ)」 단락을 해설하면서 「『현대수필대관』에 있는 글. 본과(本課)는 메이지 서원이 발행한 오치아이 나옴비 『중등국어독본 권10』으로 교정(校定)했다」¹⁷⁾고 첨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적어도 『중등교육국문독본』을 발행하는 과정에

15) 浮田真弓, 「明治中後期中学校国語読本教科書に関する一考察」, 『人文科教育研究』, 20, 人文科教育学会, 1998, p.17.

16) 菊野雅之, 「落合直文『中等国語読本』の編集経緯に関する基礎的研究—二冊の編纂趣意書と補修者森鷗外・萩野由之一」, 『語学文学』 54, 2015, p.29.

17) 조선총독부, 「『現代隨筆大觀』にある文. 本課は明治書院発行落合直文編中等国語読本卷十により校定した」, 1937, p.114.

서 일본 교과서 『중등국어독본』을 참관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중등교육국문독본』과 『중등국어독본』의 유사성

조선총독부 간행 『중등교육국문독본』(이하 『국문독본』)과 일본 교과서 『중등국어독본』(이하 『국어독본』)의 「청문사평」은 가네코 모토오미의 『평석』에서 인용된 내용이지만, 원전인 『평석』보다 두 텍스트 간의 유사성이 더 눈에 띈다. 어휘 활용에서 문장의 취사선택에 이르기까지 매우 흡사한데, 예를 들어 「봄은 새벽녘」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봄은 새벽녘(春は曙)」

『중등교육국문독본』 번역	생각건대 세이쇼나곤(清女)만이 가진 뛰어난 관찰력과 야무지고 시원시원한 필치는 도저히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u>훌륭한 점(妙処)</u> 으로서 우리 국문 중에서도 실로 <u>이채(異彩)</u> 롭다.
『중등교육국문독본』	蓋し 清女一流の敏警な觀察と、引き締つた歯ぎれのよい筆致とは、とても他の真似の出来ない <u>妙処</u> で、実にわが国文中の <u>異彩</u> である。
『중등국어독본』	蓋し 清女一流の敏警な觀察と、引き締つた歯ぎれのよい筆致とは、とても他の真似の出来ない <u>妙所</u> で、実にわが国文中の <u>異彩</u> である。
『마쿠라노소시평석』	蓋し 清少一流の敏警な觀察と、引き締つた歯ぎれのよい筆致とは、とても他の真似の出来ない <u>所</u> で、実にわが国文中の <u>異色</u> である。

위는 세이쇼나곤의 관찰력과 필체에 대한 비평이다. 작자 세이쇼나곤(清少納言)의 이름을 편의상 줄여서 부르면서, 원본인 『평석』은 「清少」라고 하였으나 『국문독본』 및 『국어독본』에는 모두 「清女」라고 되어 있다. 또한 그녀의 문장력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서술하며 『국문독본』과 『국어독본』은 「妙」라는 한자를 덧붙여 그 탁월성을 한층 더 강조했지만, 『평석』은 「妙」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이쇼나곤의 글 즉 「마쿠라노소시」가 일본 문학에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서술하며 『국문독본』 및 『국어독본』

은 「異彩」를 썼지만, 『평석』은 「異色」이라고 표현했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모든 용례를 제시하지 못했으나, 이처럼 『국문독본』 및 『국어독본』은 단어 선택에 있어서 지극히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위와 같이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국문독본』은 어휘 선택 측면에서 원전인 『평석』보다는 일본 교과서 『국어독본』과 더 가깝다. 그런데 이러한 두 텍스트의 유사성은 위에서 예시한 어휘 활용 측면뿐 아니라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자료 2】 「봄은 새벽녘(春は曙)」

『중등교육국문독본』 번역	「세 마리, 네 마리, 두 마리」라며 순서대로 쓰지 않았는데, 까마귀(烏)가 띄엄띄엄 날아가는 모습을 잘 형용한 것이기에 더 흥미롭다.
『중등교육국문독본』	「三つ、四つ、二つ」の辞様の参差は、鳥のまばらに飛んでゆく状を形容し得ておもしろい。
『중등국어독본』	「三つ四つ二つ」の辞様の参差は、鳥のまばらに飛んでゆく状を形容し得ておもしろい。」
『마쿠라노소시평석』	「三つ四つ二つ」の辞様の参差は、雁のまばらに飛んでゆく状を形容し得ておもしろい。

위는 『마쿠라노소시』 「봄은 새벽녘」 중에 「가을은 황혼녘. 저녁해가 아름답게 비추고, 산 능선이 가까워지면 까마귀가 둥지로 돌아가는데, 세 마리, 네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조차도 아름답다. 더구나 기러기 등이 줄을 지어 가는 모습이 아주 작게 보이면 정말이지 멋지다」¹⁸⁾에 대한 평이다. 이 글에는, 원래 까마귀는 아름다운 대상이 아니지만, 가을 황혼녘에 무리지어 둥지로 날아가면 그 「조차도(さへ)」 아름다운데, 하물며 기러기가 날

18) 조선총독부(1933), 『중등교육국문독본』 권8,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33, p.162
 「秋は夕ぐれ。夕日ははなやかにさして、山のはいと近くなりたるに、鳥のねどころへ往くとて、三つ、四つ、二つなど飛びゆくさへあはれなり。まいて雁などのつらねたるが、いとちひさく見ゆる、いとをかし」

아가면 얼마나 멋지겠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가네코는 여기에서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이라고 순차적으로 세지 않고, 「세 마리, 네 마리, 두 마리」라고 무질서하게 썼기 때문에 오히려 까마귀가 띄엄띄엄 무리 지어 날아가는 모습이 더욱 잘 표현되었다고 절찬한다. 문제는 『평석』에서는 「세 마리, 네 마리, 두 마리」로 떼 지어 날아간 것이 「기러기(雁)」인데 반해, 두 교과서는 「까마귀(烏)」라고 한 지점이다. 『마쿠라노소시』의 원래 본문만을 본다면, 「세 마리, 네 마리, 두 마리」씩 무리지어 날아간 것은 「까마귀(烏)」이기 때문에, 『국문독본』과 『국어독본』이 더 적절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다. 『평석』의 오류 혹은 모호한 부분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국문독본』과 『국어독본』이 원전의 오류를 똑같이 시정했다는 점에서 두 텍스트의 친밀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단어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문장의 취사 선택에도 해당된다. 「봄은 새벽녘」 단에 대한 비평이 『평석』에는 약 2,000자에 걸쳐 쓰여 있는데, 『국문독본』과 『국어독본』에는 각각 약 300자에 해당하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으며, 그 생략된 부분이 완전히 일치한다.

【자료 3-1】 조선총독부 교과서 『중등교육국문독본』 「봄은 새벽녘」

사계의 풍물이 좋고 싫음에는 심히 복잡한 연감(聯感)이 동반하지만, 직각적으로 촉감의 자극에 기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봄 가을 이 두 계절은 특히 쾌적한 시절이기 때문에, 종내 사람들이 이 두 계절의 우열을 입에 올리게 되었고, 사인(詞人)이 글재주를 다투는 좋은 주제가 되어, 어떤 때는 봄의 편을 들고, 어떤 때는 가을에게 마음을 주면서, 조심누골(彫心鏤骨), 시단의 일가전(一佳典)을 이루게 되었다. …(중략)…

특히 주의할 것은 봄의 새벽녘과 가을의 황혼녘이다. 이 글이 세상에 나온 뒤, 이 둘은 시를 읊는데 좋은 주제가 되어,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가인(歌人)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따라서 그 관찰력이 그저 놀라울 뿐 아니

라 지극히 타당하다는 것이 증명된다.¹⁹⁾

【자료 3-2】 일본 교과서 『중등국어독본』 「봄은 새벽녘」

사계의 풍물이 좋고 싫음에는 심히 복잡한 연감(聯感)이 동반하지만, 직각적으로 피부의 자극에 기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봄 가을 이 두 계절은 특히 쾌적한 시절이기 때문에, 종내 사람들이 이 두 계절의 우열을 입에 올리게 되었고, 사인(詞人)이 글재주를 다투는 좋은 주제가 되어, 어떤 때는 봄의 편을 들고, 어떤 때는 가을에게 마음을 주면서, 조심누골(彫心鏤骨), 시단의 일가전(一佳典)을 이루게 되었다. …(중략)…

특히 주의할 것은 봄의 새벽녘과 가을의 황혼녘이다. 이 글이 세상에 나온 뒤, 이 둘은 시를 읊는데 좋은 주제가 되어,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가인(歌人)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따라서 그 관찰력이 그저 놀라울 뿐 아니라 지극히 타당하다는 것이 증명된다.²⁰⁾

19) 조선총독부(1933), pp.163~168.

「四季の風物に対しての好悪は、甚だ複雑な聯感が伴ふものであるが、直覺的には、触感の刺戟に本づくことがその大部分であるから、春愁二季は殊に快適な時節と認められ、つひにこの二季の優劣は人々の口頭語となり、詞人がその才藻をきそふ好題目となり、或は春に袒を入れたり、或は秋に心を寄せたりして、彫心鏤骨、詩壇の一佳典を作るやうになつた。…(中略)…殊に注意すべきは春の曙と秋の夕暮とである。この文が一度世に出てから、この二つは吟詠の好題目となつて、千載の今もなほ歌人の口の端に載つてゐる。以てその觀察がただ奇警といふばかりでなく、極めて妥当であることが証明される。」

20) 落合直文・金子元臣編, 『中等國語讀本』卷10, 明治書院, 1926, pp.110~114.

「四季の風物に対しての好悪は、甚だ複雑な聯感が伴ふものであるが、直覺的には皮膚の刺戟に本づくことがその大部分であるから、春愁二季はことに快適な時節と認められ、つひにこの二季の優劣は人人の口頭語となり、詞人がその才藻をきそふ好題目となり、或は春に袒を入れたり、或は秋に心を寄せたりして、彫心鏤骨、詩壇の一佳典を作るやうになつた。…(中略)…殊に注意すべきは春の曙と秋の夕暮とである。この文が一度世に出てから、この二つは吟詠の好題目となつて、千載の今もなほ歌人の口の端に載つてゐる。以てその觀察がただ奇警といふばかりでなく、極めて妥当であることが証明される。」

[자료 3-3] 가네코 모토오미 「마쿠라노소시 평석」 「봄은 새벽녘」

사계의 풍물이 좋고 싫음에는 심히 복잡한 연감(聯感)이 동반하지만, 직각적으로 피부의 자극에 기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봄 가을 이 두 계절은 특히 쾌적한 시절이기 때문에, 종내 사람들이 이 두 계절의 우열을 입에 올리게 되었고, 사인(詞人)이 글재주를 다투는 좋은 주제가 되었다. ① 신대(神代)에는 봄산의 가스미오토코(霞男)와 가을산의 시타히오토코(下比男)가 경쟁하였고, 오미(近江) 조정 때는 봄산의 만개한 꽃 색깔과 가을산의 단풍 색깔을 두고 우열을 가렸으며, 헤이안(平安) 시대에는 쓰라유키(貫之)가 「비단을 두른 가을 나뭇잎, 다카스에의 딸(孝標の女)이 「어렵듯이 보이는 봄의 달」이라면서, 어떤 때는 봄의 편을 들고, 어떤 때는 가을에게 마음을 주면서, 조심누골(彫心鏤骨), 시단의 일가전(一佳典)을 이루게 되었다....(중략)...

특히 주의할 것은 봄의 새벽녘과 가을의 황혼녘이다. 이 글이 세상에 나온 뒤, 이 둘은 시를 읊는데 좋은 주제가 되어,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가인(歌人)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따라서 그 관찰력이 그저 놀라울 뿐 아니라 지극히 타당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② 마쿠라노소시는 전체적으로 생략 기법이 대단히 많다. 때로는 오히려 문장의 의미가 난해해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문장이 정갈하고 리듬에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마쿠라노소시가 문장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많지만, 생략법도 확실히 그 원인의 하나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활용어 제4단 변화의 생략법을 많이 이용한 것은 문의 간결함을 돕기 위함이다. 부인이 쓴 문장이기에 자연스럽게 줄임말을 선호하는 구어적 경향을 띤 결과 이리라.²¹⁾

21) 金子元臣, 『枕草子評釈』, 明治書院, 1928, pp.3~5.
 「四季の風物に対しての好悪は、甚だ複雑な聯感が伴なふものであるが、直覺的には、皮膚の刺戟に本づくことが、その大部分であるから、春愁二季は、ことに快適な時節と認められ、つひにこの二季の優劣は、人々の口頭語となり、詞人がその才藻をきそふ好題目となつた。神代における春山の霞男と、秋山の下比男の競争、近江朝の春山万花の妍、秋山千葉の彩の優劣からはじめて、平安朝に貫之が「錦をはれる秋の木の葉、孝標の女が「おぼろに見ゆる春の月」など、或は春に肩を入れたり、或は秋に心を寄せたりして、彫心鏤骨、詩壇の一佳典を作るやうになつた。...(中略)…殊に注意すべきは、春の曙と秋の夕暮とである。この文が一度世に出てから、この二つは、吟詠

위 각 자료의 전반부는, 사계절 중에 특히 봄과 가을이 글소재로 많이 다루어졌고, 문학사 전반에 걸쳐 두 계절을 경합시킨 글이 많다는 내용이다. 즉 봄과 가을이 「사인(詞人)」이 글재주를 다투는 좋은 주제가 되어, 어떤 때는 봄의 편을 들고, 어떤 때는 가을에게 마음을 주면서」 문단을 풍요롭게 했다는 것이다. 『국문독본』과 『국어독본』은 이 부분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데 『평석』을 보면 「좋은 주제가 되어(好題目となり)」를 「좋은 주제가 되었다(好題目となつた)」로 맺고, 그 예시를 【자료 3-3】 ①에서 알 수 있듯이 신대(神代)부터 헤이안(平安) 시대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국문독본』과 『국어독본』에는 『평석』의 ②부분도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마쿠라소시』 문장의 전체적인 경향으로 생략 기법이 많음을 지적하고, 그 생략 기법이 『마쿠라소시』의 매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두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이렇게 두 교과서는 원전인 『평석』의 문장을 인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장을 취하고 또 어떤 문장을 배제할지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

두 텍스트의 친밀도는 위와 같이 문장을 취사선택할 때뿐 아니라, 『평석』에는 없는 문장을 새롭게 덧붙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의 【자료 4】는 『평석』에는 없는 부분이 두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추가된 예이다.

の好題目となつて、千載の今もなほ、歌人の口の端に乗つてゐる。以てその觀察が、ただ奇警といふばかりでなく、極めて妥当であることが証明される。この草子全体にわたつて、省筆略筆が、極めて多い。時には却つて、文意の晦澁をきたす嫌もないでは無いが、文字が簡淨で、調子が勁健な所以も、全くここに存する。この草子が、文章的に成功した理由は多端であるが、省略法もたしかに、その一因を成したことは争へない。又活用語の第四變化の省略法を豊用したのは、文の簡潔を助ける所以である。婦人の文字、おのづから歇後の口語的傾向を帶び勝な結果であらう。」

【자료 4】「고귀한 것(あてなるもの)」

『중등교육국문독본』 번역	홍백 열은 자색의 색체에 형상, 광택의 미가 어우러져서 한 편의 구슬과 같은 시이다. 작자의 마음의 <u>빛</u> 이 비쳐 보인다. 가자미(汗衫) 옷옷과 등나무 꽃은 보라색이 매우 품위 있게 느껴진다. 특히 헤이안 시대 사람의 기호에는 꼭 들어맞는 색상이며 그냥 “질다, 얼다”라고 하면 보라색을 가리킬 정도로, 일반적이었다.
『중등교육국문독본』	紅白淺紫の色彩に形相光沢の美が入りまじって、一篇玉のやうな詩である。作者の心の <u>ひかり</u> が透徹つて見える。汗衫や藤の花はその紫色が頗る品よく感ぜられる。殊に平安人士の嗜好には深くかなつた色相で、単に濃い薄いといへば紫色のことである程に、一般的好尚となつてゐた。
『중등국어독본』	紅白淺紫の色彩に形相光沢の美が入りまじって、一篇玉のやうな詩である。作者の心の <u>ひかり</u> が透き徹つて見える。汗衫や藤の花はその紫色が頗る品よく感ぜられる。殊に平安人士の嗜好には深くかなつた色相で、単に濃い薄いといへば紫色のことである程に、一般的好尚となつてゐた。
『마쿠라노소시평석』	紅白淺紫の色彩に、形相光沢の美が入りまじって、一篇玉のやうな詩である。作者の心の <u>ひびき</u> が透徹つて見える。汗衫や藤の紫のことは、すでに木の花はの段でいつて置いた。

세이쇼나곤은 『마쿠라노소시』 「고귀한 것」 단에서 보라색 의복과 등나무 꽃이 품위가 있다²²⁾고 했는데, 위의 자료는 이에 대한 비평이다. 먼저 『국문독본』과 『국어독본』은 이러한 세이쇼나곤의 글에 「작자의 마음의 빛(ひかり)이 비쳐 보인다」고 했다. 「빛(ひかり)」 부분을 『평석』은 「울림(ひびき)」이라고 하는 등, 앞에서 지적했듯이 단어 레벨에서 두 교과서와의 간극을 여기에서도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의 밑줄친 문장이다. 먼저 『평석』을 보면 「가자미 옷옷과 등나무의 보라색에 대해서는, 이미 「나무의 꽃은」 단에서 설명해 두었다(汗衫や藤の紫のことは、すでに木の花はの段でいつて置いた)」고 되어 있다. 즉 이미 앞부분 「나무의 꽃은(木の花は)」 단에서 관련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해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문독본』과 『국어독본』에는 「나무의 꽃은」 단이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고,

22) 조선총독부(1933), p.116, 「薄色に白がさねの汗衫。かりのこ。けづり氷のあまづらに入りて新しきかなまりに入りたる。するさうの数珠。藤の花。梅の花に雪のふりたる、いみじう美しきちごの覆盆子くひたる」

『평석』의 「나무의 꽃은(木の花は)」 단락으로 되돌아가서 일부 문장과 어휘만을 차용하여 「가자미(汗衫) 옷옷과 등나무 꽃은 보라색이 매우 품위 있게 느껴진다. 특히 헤이안 시대 사람의 기호에는 꼭 들어맞는 색상이며 그냥 “질다, 열다”라고 하면 보라색을 가리킬 정도로 일반적이었다」는 해설을 추가적으로 삽입시켰다. 실은 『평석』의 「나무의 꽃은」 단은 두 텍스트가 채택한 이 해설보다 훨씬 더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²³⁾. 두 텍스트는 이러한 긴 문장에서 해당 부분만을 적절히 발췌하여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석』의 해당 장면에는 없는 문장을 새롭게 추가하고, 또 그 문장의 구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국문독본』과 『국어독본』의 관계가 원전인 『평석』과의 그것 이상으로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단어 사용법, 원전으로부터 문장의 취사 선택, 추가적인 문장 삽입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문독본』의 「청문사평」 단원은 원전인 『평석』보다는 일본에서 발행한 『국어독본』의 내용 구성에 기반하여 집필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⁴⁾.

23) 金子元臣(1928), pp.220~221.

「藤の花は奈良以前から賞翫された花で、これを氏名とした藤原氏もある。「今ぞ栄えむ北の藤なみ」など歌はれて、藤原氏の興隆と共に、ますます珍重され、その花の紫色は、色相上非常になつかしい色合である。殊に平安人士の性情では、この派手やかな優雅な紫色が、大いにその嗜好に適つたもので、大宝令の服色の制度が一変して、四位以上一色の黒袍となつたこの時代にも、なほ紫を聴色即ち禁色といつて、勅許を経ぬ以上は、君達でも著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単に色合いが濃い薄いといふ時は、紫色のうへのことである程に一般的好尚となつた。常時非常にもてはやされた葡萄染めでも、二藍でも、つまりは紫が基礎色である。」

24) 『국문독본』과 『국어독본』이 완전무결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표기법의 측면에서 보면 『국문독본』이 『국어독본』보다 한자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극히 일부 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도 때로는 존재한다. 그리고 두 교과서에는 서로 다른 세이쇼나곤의 초상화를 게재하고 있다. 『국문독본』에는 기구치 요사이(菊池容齋, 1788~1878)의 대표작 『전현고실(前賢故実)』 권5에 수록된 그림이 삽입되어 있다. 한편 『국어독본』에는 에도 시대의 대표적 화가인 도사 미쓰오키(土佐光起, 1617~1691)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삽화가 게재되어 있다*.

4. 『중등교육국문독본』의 독자적인 문장 구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교과서 『국문독본』의 「청문사평」은 일본에서 발행된 『국어독본』에서 전제 혹은 적어도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국문독본』의 「지나간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 단락에는 『평석』과 『국어독본』이 공통적이고, 『국문독본』만 독자적인 부분이 있다.

【자료 5】 「지나간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過ぎにしかた恋しみもの)」

『중등교육국문독본』 번역	<p>당시 상류사회의 인형놀이는 현재 히나(雛) 인형같은 장식을 늘 했었던 것 같다.</p> <p>①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이누키가 인형 집을 망가뜨려서 무라사키 노우에가 소동을 피우는 장면이 있고, 또 「사이구노노고슈(齋宮女御集)」에</p> <p>② 인형놀이를 하는데, 신이 계신 곳에 참배한 여자 운운. 같은 인형 집(雛社) 앞에 있는 강, 단풍이 있는 곳. 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보아, 상당히 중요한 행사였다.</p>
『중등교육국문독본』	<p>當時の上流社会の雛遊は、今のお雛様のやうな飾附を常にやつてあたらしい。</p> <p>① 源氏物語に、雛の家を犬きがこはしたので紫上が大騒ぎをした事があり、又齋宮女御集に、</p> <p>② ひひな遊に神のおもとに詣づる女云々。 おなじ雛社の前の川に紅葉のある所。 など見え、中々大業なものだつた。</p>
『중등국어독본』	<p>當時の上流社会の雛遊は、今のお雛様のやうな飾附を常にやつてあたらしい。</p> <p>① 源氏物語に、雛の家の事があり、又齋宮女御集に、</p> <p>② ひひな遊に神のおもとに詣づる女に男出で会ひ物いひなどす。 おなじ雛社の前の川に紅葉のある所。 など見え、中中大業なものだつた。</p>
『마쿠라노소시평석』	<p>當時の上流社会の雛遊は、今のお雛様のやうな飾附を常にやつてあたらしい。</p> <p>① 源氏物語に、雛の家の事があり、又齋宮女御集に、</p> <p>② ひひな遊に神のおもとに詣づる女に、男出で会ひ物いひなどす。 おなじ雛社の前の川に、紅葉のある所。 など見え、中々大業なものだつた。</p>

러한 미세한 차이를 감안하면 『중등교육국문독본』이 『중등국어독본』이 아닌 제 3의 교과서를 참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첨언해 둔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영주 선생님께서 교시를 받았다. 본 논고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마쿠라노소시』 「지나간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 단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비꽃, 인형놀이 도구, 예쁘게 물들인 천조각, 편지 등인데, 【자료 5】는 그 중에서 인형놀이 도구에 관한 설명이다.

『국문독본』은 인형놀이의 용례를 고전문학작품에서 찾아 제시하는 과정에서 ① 『겐지모노가타리』에 이누키가 인형집을 망가뜨려서 무라사키노우에가 소동을 피우는 장면이 있다고 하였다. 한 편 『국어독본』은 『겐지모노가타리』에 인형 집 관련 사항이 있다(源氏物語に、雛の家の事があり)고만 했는데, 이는 『평석』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실 『국문독본』이 소개한 「이누키가 인형집을 망가뜨려서 무라사키노우에가 소동을 피우는 장면」은 『겐지모노가타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누키(犬君)는 무라사키노우에(紫上)의 시종으로 『겐지모노가타리』에는 2번 등장한다. 첫 번째는 무라사키노우에가 키우던 참새새끼를 이누키가 놓쳐서 무라사키노우에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²⁵⁾이고, 두 번째는 이누키가 망가뜨린 인형집을 무라사키노우에가 방 안 가득 퍼놓고 놓고 있는 장면²⁶⁾이다. 『겐지모노가타리』의 본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장면은 무라사키노우에가 「소동(大騒ぎ)」을 부렸다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인형집을 가지고 놓고 있는 장면은 「소동」이라고 해석할 만한 부분이 없다. 『국문독본』의 「이누키가 인형집을 망가뜨려서 무라사키노우에가 소동을 피우는 장면」이라는 해설은 두

25) 阿部秋生・今井源衛・秋山虔・鈴木日出男 編, 『源氏物語』 ①,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94, p.206. 「雀の子を犬君が逃がしつる、伏籠の中に籠めたりつるものを」とて、いと口惜しと思へり」.

26) 阿部秋生・今井源衛・秋山虔・鈴木日出男(1994), p.321. 「小きき屋ども作り集めて奉りためへるを、ところせきまで遊びひろげたまへり。「雛やらふとて、犬君がこれをこぼちはべりにければ、つくりひはべるぞ」とて、いと大事と思いいたり」.

번째 장면을 확대해석했거나, 혹은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오류일 수 있다. 이렇게 『평석』과 『국어독본』에는 없는 『국문독본』의 독자적인 문장은 바로 뒷부분의 『사이구노노고슈(齋宮女御集)』의 인용에서도 나타난다.

『사이구노노고슈』는 기시(徽子, 929~985)라는 여성이 읊은 와카(和歌)를 모은 가집(歌集)이다. 기시는 이세 신궁(伊勢神宮)에 재궁(齋宮)으로 있다가 훗날 무라카미(村上) 천황의 뇨고(女御)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이구노노고」라는 통칭으로 불린다. 【자료 5】에서는 인형놀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가집에 수록된 글을 인용하였다. 아래는 『사이구노노고슈』의 해당 부분이다.

궁중에 계실 때, 인형놀이를 하는데, 신이 계신 곳에 참배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와카를 주고 받았다.

그 예전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곳에 오니 마음이란 정말로 바뀌는 법이군요²⁷⁾

『사이구노노고슈 주석(齋宮女御集注釈)』에 따르면, 위의 와카는 사이구노노고 즉 기시(徽子)가 궁중에 있을 때 인형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에서 여자 인형과 남자 인형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읊은 것이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신사에 참배했다가 우연히 만나서 서로 와카를 주고 받았는데, 이어지는 와카 「그 옛날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곳에 오니 마음이란 정말로 바뀌는 법이군요」는 남성이 읊은 것이다. 즉 신이 계신 곳에 참배를 왔다가 여성을 만나니, 옛날에는 신의 영험을 믿지 않았지만, 여성을 만난 뒤 여성에 대한 마음

27) 平安文学輪読会, 『齋宮女御集注釈』, 塙書房, 1981, p.74.

「うちにおはせし時、ひひなあそびの神の御もとにまうでたる女をとこまうであひて、物いひかはすそのかみはさしもおもはでこしかどもおもふことこそことになりぬれ」

이 더욱 절절해졌듯이 신에 대한 믿음도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와카 뒤에는 본고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바로 여성의 답가가 이어진다. 『사이구노노고슈』의 이 부분은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한 전형적인 증답가이다.

이 중에 『평석』은 고토바가키(詞書) 「인형놀이를 하는데, 신이 계신 곳에 참배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와카를 주고 받았다」를 인용했다. 이를 『국어독본』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국문독본』은 「인형놀이를 하는데, 신이 계신 곳에 참배한 여자」까지만 인용하고, 그 여자가 「남자」와 「만나서 와카를 주고 받았다」는 뒷부분은 배제하였다. 『평석』과 『국어독본』에 있었던 문장이 『국문독본』에만 없다는 것은 『국문독본』의 의도적인 삭제이며, 『국문독본』의 저작 논리가 돌출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삭제 방법에 있어서도 「신이 계신 곳에 참배한 여자」만으로는 의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본래 목적인 주석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문독본』은 해당 문장에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와카를 주고 받았다」는 부분의 삭제를 감행했다.

『국문독본』의 이러한 편집에 의해, 해당 문장은 『평석』 『국어독본』과는 그 발(發)하는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 『평석』 『국어독본』의 「신이 계신 곳에 참배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와카를 주고 받았다」는 여자와 남자가 와카를 주고 받은 것에 방점이 놓여 있지만, 『평석』의 「신이 계신 곳에 참배한 여자」는 문장 구조 상 「신이 계신 곳에 참배」에 주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사이구노노고슈』에서는 남녀의 애정이 주제였던 고토바가키가 조선총독부의 편집에 의해 「신이 계신 곳에 참배」를 강조하는 의미로 크게 바뀐 것이다.

이러한 편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앞의 Ⅲ-2절에서 검토한 『국문독본』의 편찬취의를 다시 살펴 보면, 『평석』 『국어독본』의 「신이 계신 곳에 참배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와카를 주고 받았다」는 조선의 중학교

에서 교재로 사용함에 있어서 「적당하지 않은 것」, 「교수자가 취급하는데 곤란을 느끼는 것」이며, 「내선의 융화, 공영적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현저하게 살벌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국문독본』의 「신이 계신 곳에 참배한 여자」는 「화평중정의 정조 함양에 이바지」하는 글이 된다.

조선총독부는 남녀가 신이 계신 곳에 참배했다가 만남을 갖고 애정 관계로 발전한다는 내용을 식민지 조선의 교과서에서는 허용하지 않았고, 일부 어구의 삭제를 통해, 한 여성이 신이 계신 곳에 참배했다는 내용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당초 『사이구노노고슈』의 와카가 쓰인 헤이안(平安)시대의 「신(神)」과 국가신도가 강제된 식민지 조선에서의 「신(神)」은 그 함유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헤이안 시대 문학작품의 세계관이 일본 제국이 식민지 조선의 시공간에 강요했던 세계관과는 정합하지 않았기에, 조선총독부는 주석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한다 할지라고 과감한 어구 생략을 꾀한 것이다.

사실 『국문독본』은 권8 「헤이안초 시대의 문학」 단원에서도 원전과 일본 교과서에는 게재되었던 헤이안 시대 비관을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하였다.²⁸⁾ 이러한 편집 방침은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문학작품의 인용에 있어서도 적용되었다. 즉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의 문화적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교과서에 일본고전문학 작품을 채록한다 할지라도, 그 고전문학의 세계관이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의 정책과 전략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과감히 편집, 삭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8) 김효숙, 「朝鮮總督府刊行『中等教育国文読本』の『源氏物語』-日本の教科書との比較を中心に-」, 『日本言語文化』 53, 2020, pp.195~212.

IV. 나오며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문학작품을 대거 등장시키며 그 전후의 교과서와는 차별화하여 제작한 『중등교육국문독본』에는 일본고전문학의 대표작 『마쿠라노소시』의 일부가 가네코 모토오미의 주석서 『마쿠라노소시 평석』을 인용하는 형태로 게재되어 있다. 또한 그 인용에 있어서는 『마쿠라노소시 평석』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발행된 교과서 『중등국어독본』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선총독부 교과서 『중등교육국문독본』의 「청문사평」이 원전인 『마쿠라노소시 평석』보다 일본에서 발행된 교과서 『중등국어독본』과 어휘 활용, 문장의 취사 선택에 이르기까지 높은 유사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안에는 『중등교육국문독본』만의 독자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바로 헤이안 시대에 성립된 와카집 『사이구노노고슈』의 신이 계신 곳에 참배를 간 남녀가 만나 와카를 주고 받았다는 글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교과서는 어떤 여성이 신이 계신 곳에 참배했다는 내용으로 편집하였다. 일본에서 간행된 교과서에서는 허용되었던 「신이 계신 곳」에서의 이성과의 만남이 식민지 조선의 교과서에서는 삭제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에게 「참배」했다는 내용이 주제가 되었다. 이는 헤이안 시대 문학작품 속의 「신(神)」과 일본제국에 의해 국가신도가 강제된 식민지 조선에서의 「신(神)」은 그 함유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문화적 우월성을 피력하기 위해 일본고전문학작품을 적극적으로 교재화하면서도 그 고전문학작품의 세계관이 일본제국이 식민지 조선에서 필요로 하는 세계관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삭제, 편집을 통해 고전문학작품을 식민 지배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조선총독부 교과서에 채록된 일본문학작품의 서술은 일본제국의 조선에

대한 통치 전략, 교육 전략, 종교 전략 등과 큰 틀에서 맞닿아 있고, 따라서 문학작품의 서술이 바로 일본제국의 논리를 대변한다. 논자는 향후 계속해서 이러한 조선총독부 교과서의 서술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문학작품이 어떻게 서술되고 포장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문학작품이 식민 통치에 어떻게 봉사하였는지 분석해 나아가고자 한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1년 11월 20일

논문 심사일 : 2021년 11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12월 6일

참고문헌

- 김한중,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교과서 발행」, 『역사교육연구』 9, 2009.
- 김효숙, 「미디어로서의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國文讀本)』 - 편집과 발췌 그리고 은폐에 의한 교과서 서술」, 『일본공간』 26, 2019.
- _____, 「朝鮮總督府刊行『中等教育國文讀本』の『源氏物語』-日本の教科書との比較を中心に-」, 『日本言語文化』 53, 2020.
- 장 신,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와 교과서 편찬」, 『역사문제연구』 16, 역사문제연구소, 2006.
- 조선총독부, 『중등교육국문독본 권 7, 8 교수비고(中等教育國文讀本 卷七, 八 教授備考)』,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37.
- 조선총독부, 『중등교육국문독본』 권 8,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33.
- 하재연, 「식민지 문학연구의 역사주의적 전환과 전망」,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 허재영,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과 교과서 편찬 실태」, 『동양학』 46, 2009.
- 『매일신보』, 「朝鮮教育方針」, 1910. 10. 13., 매일신보사.
- 東望歩, 「教科書のなかの〈枕草子〉」, 『日本文学』 63(1), 日本文学協会, 2014.
- 阿部秋生·今井源衛·秋山虔·鈴木日出男 編, 『源氏物語』①,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94.
- 浮田真弓, 「明治中後期中学校国語讀本教科書に関する一考察」, 『人文科教育研究』, No.20, 人文科教育学会, 1998.

落合直文・金子元臣編, 『中等国語読本』 卷10, 明治書院, 1926.

金子元臣, 『枕草子評釈』, 明治書院, 1928.

菊野雅之, 「落合直文『中等国語読本』の編集経緯に関する基礎的研究一二冊の
編纂趣意書と補修者森鷗外・萩野由之一」, 『語学文学』 54, 2015.

平安文学輪読会, 『斎宮女御集注釈』, 塙書房, 1981.

渡部学・阿部洋,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 朝鮮篇』 18, 龍溪書舎, 1990.

Abstract

The Pillow Book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Focusing on the Description of *Chûtotkyôï kukubuntokuho* (中等教育國文讀本)

Hyo-sook, Kim

Chûôtokyôïkukubuntokuhon (中等教育國文讀本) is a Japanese textbook for secondary education publish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ince 1930. A unique feature of this textbook is that it contains many Japanese literary works, unlike the previous textbooks. Furthermore, the content is often re-quoted from texts published in Japan at that time, not from the original texts of the Japanese literary works.

Volume 8 of the *Chûôtokyôïkukubuntokuhon* contains part of *The Pillow Book* (枕草子), a Japanese classic essay, and criticisms of it. The original text of this chapter is a book by Motoomi Kaneko called *The Pillow Book Commentary* (枕草子評釈). However, this part of the *Chûôtokyôïkukubuntokuhon* is not from the original text, but from the *Chûôtôkokugotokuhon* (中等國語讀本) textbook published in Japan at that time. Thi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the contents of the two texts are very similar, from words to sentence selection.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two texts are very similar overall, some texts publish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ere omitted. For

example, the Heian-era waka poems about the scene where men and women exchanged love in front of “*Kami*” (god, 神) were omitted. This is because the meaning of “*Kami*” in Heian period literary works is different from the word “*Kami*” that the Japanese Empire seeks in colonial Korea.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as cited many Japanese classical literary works in textbooks to show Japan’s superiority. However, when the worldview of classical literary works conflicted with the worldview that the Japanese Empire wanted to plant in colonial Korea, some scenes in literary works were deleted.

Key words

Textbook, Japanese colonial era, *The Pillow Book*, *chûtôkyôikukokubuntokuhon*, *Chûtôkokugotokuhon*